

Strategy

Strategist 이경민
kyoungmin.lee@daishin.com

반전을 위한 퍼즐. 중국, 반도체... 그 다음은 미국

- KOSPI 반전, 2,650선 회복. 중국 경기부양 패키지, 마이크론 실적 호조의 힘
- 중국 경기부양정책 신뢰도 회복, 한국 반도체, IT 수출 호조 지속 예상
- 마지막 퍼즐 미국. ISM 지수, 고용지표 결과에 KOSPI 2,700선 회복/안착 여부 결

KOSPI가 2,650선을 넘어섰다. KOSPI를 억눌러왔던 변수들이 우호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. 필자는 KOSPI 부진의 원인으로 G2 경기와 반도체 업황/실적 불안, 이로 인한 외국인 대량매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. 다행히 지난주 중국의 경기부양 패키지, 마이크론 실적 호조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가 7거래일만에 순매수 전환했다. KOSPI는 지난주 3%(26일 증가) 반등했고, 그 중심에 2차전지와 반도체, 화장품, 인터넷 등이 자리했다.

중국 금융당국은 24일 정책 금리 및 기준율 인하, 기존 주담대 금리인하와 더불어 주택 보증금 비율 하향조정, 재대출을 통한 증시부양을 제시했다. 27일 인민은행은 기준율 0.5%p 인하, 7일물 역레포 금리도 1.7%에서 1.5%로 조정했다. 경기부양 패키지 공개 이후 곧바로 시행에 나서며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다. 중국 상해종합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12% 급반등했다. 이번주 발표되는 중국 통계국, 차이신 PMI도 전월대비 개선이 예상된다. 당분간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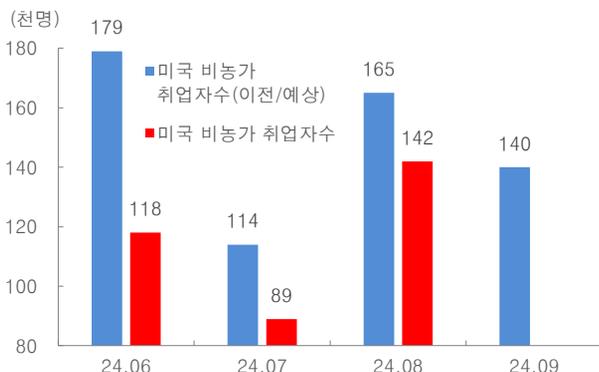
업황/실적 불안과 외국인 대량매도에 시달리던 반도체도 마이크론 실적 호조와 예상보다 강한 가이드스 제시로 반등했다. 이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이어졌다.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. 10월 1일 한국 수출에서 또 한 번 반도체, IT 수출 호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. 9월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50.4%, 전월대비 24% 증가했다. 여타 IT 산업의 수출 호조도 지속되고 있다.

이제 남은 퍼즐은 미국이다. 이번주 미국 ISM 제조(10월 1일)/서비스(3일) 지수와 고용지표(4일)가 공개된다. 8월, 9월 초 미국 경기침체 공포심리를 자극해온 지표들이다. ISM 제조업(9월 47.6 예상, 8월 47.2), 서비스업(9월 51.5 예상, 8월 51.5) 지수는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. 관건은 고용이다. 실업률은 4.2%로 유지되지만, 비농업 고용자수는 14만명으로 8월(14.2만명)대비 소폭 둔화가 예상된다. ISM, 고용지표 결과와 컨센서스 간 괴리율이 사상최고치 행진 중인 미국 증시 등락은 물론, KOSPI 2,700선 돌파/안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

반도체 중심의 IT 수출 호조 지속



비농가 취업자수 8 월대비 소폭 둔화 예상



자료: 관세청, 미국 노동부, CEIC,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작성자: 이경민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